

전 남

나주여고 “괴담 나돌아 공부 못해요”

학교 옆 공동묘지... 진입로 없어 장례행렬 운동장 통과

통학로 좁고 폐가 방치도... 교육환경 개선 시급

나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자 고등학교의 주변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나주시 청동에 위치한 나주 여자와고등학교는 전교생 275명으로 나주시역 여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이다.

하지만 주변 교육환경은 학부모들

이 우려 할 정도로 턱없이 열악해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여고의 경우 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폐가(廢家)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학생들 사이에 혐오시설로 각인돼 있으나 해당 토지가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학교를 왕래하는 주 출입로의 폭이 불과 5m남짓으로 승용차의 교행마저 어려워 등·하교길 학생들과 출·퇴근 하는 교사들이 매일 같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학교 바로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나 해당 묘지로 진입하는 길이 없어서 장례행렬이 매년 교문으로 진입해 운동장 사이로 지나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나주여고 K모(3학년)양은 “학교 바로옆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공동묘지가 있어 무서운 괴담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다”며 공동묘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자체를 마련할 수 없어서 나주시 등에 이 같은 상황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나주여고 김재경 운영위원장은 “학교가 관련 예산을 전혀 마련할 길이 없는 만큼 담당관 임장 뿐이다”며 나주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여수 섬마을을 초등학생들이 오는 7월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 될 예정인 이번 ‘미디어페스티벌’은 초등학교 4~6학년 100명 이내 학생들이 대상으로 카메라 및 동영상 촬영기법을 물론, 특수효과 등 이론 교육을 토대로 10분 이내의 영상물을 실제 제작하는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영상 제작은 어린이들의 고향 섬마을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현지 촬영일정 등으로 수일이 결릴 예정인데 어린이들은 자신의 제작물을 함께 보며 즐기는 시사회를 통해 각자 작품에 대한 평가 기회도 갖는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곡성 기차마을 ‘상인대학’ 입학식

곡성군은 지난 9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개설, 입학식을 가졌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선정한 전국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인대학은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시장상인 육성을 위해 (주)보고정보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추진한다.

이번 상인대학 참여자는 주 3~4회 2개월 동안 전남대, 조선대 등 경영학 전공 교수진과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 특강을 통해 시장경영의 비법을 교육받게 되며, 시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게 된다.

/중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 벚꽃터널 11일 여수 올림픽 시외버스 터미널과 중앙여고를 거쳐 여수중학교에 이르는 충민로가 화사한 벚꽃의 향연으로 가득하다. 이곳에는 수령 40~50년에 이르는 왕벚나무 300여 그루가 식재돼 있다.

다”며 “시와 문화원 사이의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문화원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내려준 순천문화원 사측기금용 특별교부세 20억원으로 구 시네마극장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청사가 부족했던 시에 기부 채납했다. 시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해 문화원에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2008년 9월 처러던 문화원장 선거에서 시가 추천한 후보자가 아닌 현 원장이 당선되자 2009년부터 문화원에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아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중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ija@

나주시-혁신도시 이전 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성료

나주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9일 이전기관 및 나주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미혼남녀들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따뜻한 만남 소중한 추억,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KPS(주) 등 9개 이전 기관과 나주시청 등 지역 3개 기관의 직원 중 희망자를 신청받아 총 17쌍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순천문화원 ‘시청별관’ 소유권 승소

순천지원 판결

순천시청 별관(구 시네마극장)의 소유권을 놓고 순천문화원과 순천시 사이에 벌인 법정 다툼에서 순천문화원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문화원이 시에 기부채납한 순천시청 별관 건물은 다시 문화원 소유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원이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 시 관원자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중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ij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경현)는 순천문화원이 ‘시청별관의 소유권을 순천시청에 이전하기를 말소해 달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천시는 말소등 기질처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는 문화원에 대해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순천시청 별관을 증여받았는데, 순천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

‘울촌 관리원’ 출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불편 해소

‘울촌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와 더불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담하는 ‘울촌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하 울촌관리원)이 지난 9일 출범했다.

‘울촌관리원’은 울 상반주 중공 예정인 울촌자유무역지역의 관리, 입주허가, 각종 건축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처리 등 근거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며 이날 중순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번 관리원의 신설로 그동안 이곳에 관리원이 없

여수 섬 초등생들 방학때 영화감독 도전

GS칼텍스재단 ‘미디어 페스티벌’ 행사 개최

4~6년 100명 대상 10분짜리 단편영화 제작

여수 섬마을을 초등학생들이 오는 7월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 될 예정인 이번 ‘미디어페스티벌’은 초등학교 4~6학년 100명 이내 학생들이 대상으로 카메라 및 동영상 촬영기법을 물론, 특수효과 등 이론 교육을 토대로 10분 이내의 영상물을 실제 제작하는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영상 제작은 어린이들의 고향 섬마을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현지 촬영일정 등으로 수일이 결릴 예정인데 어린이들은 자신의 제작물을 함께 보며 즐기는 시사회를 통해 각자 작품에 대한 평가 기회도 갖는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민간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GS칼텍스 김기태 상무는 “미디어 문화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섬 어린이들에게에 대한 혜택이나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번 행사가 섬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원한 영상 장비로 이번 행사가 끝난 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찾는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할 예정이다.

장흥 ‘무산 김’ 이어 미역도 친환경 인증

전국 최초 ‘넙치 등 확산계획’

장흥군이 ‘무산(無酸) 김’에 이어 전국 처음으로 ‘미역’에 대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장흥군은 친환경 미역생산을 위해 우선 30여 년간 공유수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있는 미역양식 어장의 불법시설에 대해 현실화 및 어장 재배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를 통해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해 인근 김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수산물생산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바다환경 보존과 고품질 생산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기존 어업면적 368ha에 대한 재배치와 고집적인 민원 해소를 위한 신규어장 개발 178ha를 신청해, 전남도 승인을 얻었다.

또한 미역 양식어장의 재배치 및 친환경 양식단지로 총 546ha를 완료해 조성된 어장은 지난 2월부터 미역 생산을 시작했다.

/중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장흥군은 앞으로 전남도의 ‘친환경 5개년 계획’에 발맞춰 ‘무산김’과 ‘미역’에 이어 넙치 등 장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양식어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들이 함께 생산한 친환경 김과 미역이 제값을 받아 어가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 및 환경보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동구 대동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보이 1억5천만 원 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 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 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3-1772 ☎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재서점2번)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종류	감평가	최저가
남구	신항동	해당동리	109/33	1억3천
	남산동	향동-3리	211/64	1억4천
북구	북산동	향동-3리	129/39	1억4천
	북산동	향동-3리	158/48	1억5천
서구	서산동	향동-3리	158/48	1억4천
	서산동	향동-3리	189/60	1억5천

• 위치: 법원 일직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나팔(전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명도(이사)